

뜻풀이로 본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 유형 연구

김문기(동아대)

<차 례>

1. 머리말
 2. 앞선 연구의 검토
 3. 감탄사의 유형 분류
 4. 맺음말
-

【벼리】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현대 표준어 감탄사 586개를 자료로 삼아, 그 유형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학교 문법에서는 감탄사의 유형을 그 의미에 따라 ‘감정, 의지, 말버릇’으로 분류했다.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감탄사의 뜻풀이를 맺는 방식, 즉 ‘소리, 말, 군소리, 구령 또는 그 동작, 구호, 후렴, 소리 또는 모양’ 등으로 감탄사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이때 감탄사의 의미 자질들을 유형 분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이것을 기초 자료로 삼아 학교 문법에서 감탄사에 대한 교육 내용과 활동 등에 참조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같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감탄사, 유형, 분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소리, 말, 군소리, 구령/동작, 구호, 후렴, 소리/모양

1. 머리말

우리말 품사 분류 체계에서 논란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감탄사’이다. 규

범 문법으로서 학교 문법인 교육과학기술부(2009:107)와 교육과학기술부(2010:143)에서는 감탄사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 ㄱ.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아래의 ‘여보, 아, 네’처럼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 이를 감탄사(感歎詞)라고 한다. ... 여보, 우리 아이도 이제는 다 컸어요. / 아, 세월이 빠르구나. / 네, 그래요.

ㄴ. ... 감탄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화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별개의 문장으로 다루기도 한다. 감탄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놓이는 위치도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보인다. ‘여보, 아, 네’뿐만 아니라, 구어에서 자주 쓰이는 군말로 ‘있잖아(요)’, ‘말이다[말이에요]’와 같은 것도 감탄사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글쎄(요), 웬대[웬지], 그렇지, 빌어먹을(욕설)’ 등도 감탄사로 볼 수 있다.

(1ㄱ)과 (1ㄴ)에서 감탄사의 개념은 제시되지만, 그 유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용례를 통해 부름, 감정, 대답, 군말, 욕설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품사 분류의 방식은 학교 문법에 기반을 두고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감탄사 자료를 조사하고, 그 뜻풀이에 기초하여 감탄사의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앞선 연구의 검토

감탄사의 유형 분류를 다룬 앞선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감탄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나찬연 2016:231~234 참조.)

- (2) ㄱ. 감정 감탄사: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그침.

ㄴ. 의지 감탄사: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청자에게 자기의 요구나 판

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함.

ㄷ. 말버릇 감탄사: 구체적인 뜻 없이 쓰임.

최용환(2015:226~230)에서는 중등학교의 『국어1』 교과서와, 『독서와 문법』 및 학교 문법서 등을 통해 학교 문법의 감탄사 유형이 (2)와 다름이 없음을 논의했다.

최호철(2000)에서는 학교 문법의 유형 분류를 따르는데, 특히 ‘감정 감탄사’에 국한하여 그 유형을 ‘감각 감탄사’와 ‘정서 감탄사’로 나누고,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활용하여 그 의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¹⁾

전영옥(2012:237~256)에서는 『표준』과 말뭉치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탄사 유형을 제시했다

(3) 감탄사의 유형 분류

분류 기준				예
드러냄	감정	[-의미 고정]		아, 아유, 아이구...
		[+의미 고정]	노래	에루화, 상사뒤요...
			욕설	난장맞을, 넌장...
			장례	아이고, 애고애고...
			문어체	시호시호, 오홑다...
			뻘사람	어기야, 어기야디야...
	인지	[-의미 고정]		아빨사, 아차...
		[+의미 고정]		지화자, 브라보...
	기원	[+의미 고정]		아멘, 나무아미타불...
알림		[-의미 고정]		에헬, 에헬...
		[+의미 고정]		곤두곤두, 오버...

1) 최호철(2000:369~376)에서는 감정 감탄사의 기본 의미를 ‘불쾌, 유쾌, 만족, 안심, 각성, 신기, 흥취, 감격, 기쁨, 흐뭇, 곤란, 근심, 불만, 실망, 포기, 후회, 답답, 초조, 고통, 놀람, 분노, 슬픔, 한탄, 공포, 불쌍, 원망, 의심, 걱정, 이상’ 등의 29가지로 파악했다. 또한 다의어 감탄사 중 서로 관련성이 없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함을 언급했다.

행동 유발		[-의미 고정]		쉬, 아서라, 자...
		[+의미 고정]	군인	거충, 걸어충...
			동물	굽아, 두두, 쉬...
			유아	걸음마, 곤지곤지...
			집단	여기여차, 영차...
			개인	앗, 얌...
			기타	레디고, 옛단쇠...
행동	부름	[-의미 고정]		야, 애, 어이...
		[+의미 고정]	가족 관계	고모부, 빙모님...
			동물	구구, 아나나비야...
			기타	복, 여보세요
	응답	[-의미 고정]		네, 예, 그래...
		[+의미 고정]		유유
	인사	[+의미 고정]		빠이빠이, 안녕...
기타 의도		[-의미 고정]		뽕, 메롱...
				거시기, 그, 뭐...

(3)에서 ‘분류 기준’으로 보이는 ‘빈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게 어려워, 분류 기준의 계층성과 명시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감탄사의 설정 근거와 유형 분류 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감탄사의 의미(내용)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유형 분류를 위해 『표준』에 등재된 감탄사 표제어를 자료로 삼아, 그 뜻풀이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²⁾

3. 감탄사의 유형 분류

『표준』에 등재된 감탄사 중 방언, 북한어, 비표준어, 옛말 등을 제외하면 표준어인 감탄사는 모두 586개이다.

2) 말뭉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국어사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학교 문법의 ‘규범성, 표준성’ 등의 측면에서도 상통하여 적절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문법의 감탄사 유형 분류에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향후 이러한 유형 분류가 학교 문법에도 참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1. 『표준』에 등재된 감탄사의 뜻풀이 유형

먼저 『표준』에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표제어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4) ㄱ. 소리: ~을 때 하는/내는/나오는/내던/내쉬는/외치는/지르는/부르짖는 소리, ~을 강조하여 내는 소리, ... 갑자기 지르는 소리, ~을 불러일으키는 소리, ~려고 내는 소리, ~을 흉내내는/나타내는 소리, ... 뜻으로 내는/달래는/외치는 소리, ~을 때 ... 하기 위해 내는 소리, ~을 부르는 소리, ~로 외치는 소리, ... (공손히) 대답하는 소리, ~기 위해 (급히) 지르는 소리, ~려고 함께 힘을 주어 내는 소리, ~을 ~면서 지르는 소리, ... 기침 소리, ~려고 일부터 내는 큰기침 소리, ~게 내는 기침 소리, ~느라고 내는 발은기침 소리, ~을 때 내는 콧소리./ ~는 콧소리, ... 혼자서 하는 소리, ... 우는 소리, ... 저절로 나오는 소리/한숨 소리, ...의 후렴구에 나오는 소리./ ... 노래의 후렴 소리./ ~을 때 내는 구음(口音).
- ㄴ. 말: ~을 때 쓰는/하는/부르는 말./ ~라는 뜻으로 쓰는/하는 말, ...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는 뜻으로 하는 말, ... 욕으로 하는 말, ~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말, ~을 때 영탄조로 하는 말, ~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을 (조금) 높여 이르는 말, ~을 ... 하면서 하는 말, ~을 ... 하며 내는 말
- ㄷ. 군소리: ~을 때 쓰는 군소리./ ... 막힐 때 중간에 덧붙여 내는 군소리.
- ㄹ. 구령 또는 그 동작(명령): ~으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 ㅁ. 구호: ... 지휘하는 구호.
- ㅂ. 후렴: 후렴구에 나오는 소리./ 후렴 소리./ 후렴의 일부.
- ㅅ. 소리 또는 모양: ~게 내는 큰기침 소리. 또는 그 모양

(4)에서 보듯이 『표준』에서는 감탄사의 뜻풀이가 대부분 ‘소리, 말, 군소리, 구령 또는 그 동작, 구호, 후렴, 소리 또는 모양’ 등으로 맺고 있다. 이때 ‘수식어+체언’의 구조로 뜻풀이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중심어인 체언을 뜻풀이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 기존의 감탄사 분류에서는 그것이 나타내는 ‘감정, 의지, 말버릇·더듬거림’ 등과 같은 뜻풀이의 내용이나 용법 등을 바탕으로 했다. 따라서 감탄사의 유형을 설정할 때 이러한 뜻풀이 방식을 그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2. 『표준』에 등재된 감탄사의 유형 분류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표준』의 뜻풀이 방식에 따라 감탄사의 유형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때 『표준』의 뜻풀이에 바탕을 두고 (4)에서 제시한 유형에 따라 차례로 살펴본다.

(5) ‘소리’ 감탄사

분류 기준		감탄사
[+ 감정]	좋음	아유01,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애고애고,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쿠, 예구, 예구구
	기쁨, 환호	만만세, 만세04, 브라보, 시재시재, 시호시호, 아02, 야호02, 어02, 어화01, 와02, 와와, 우아01, 우아우아, 이아01, 하03, 허02
	신남	브라보, 야호02, 흥03
	감격(감동)	아아01
	탄복	어쩐
	기특함	아이고나, 어이구나
	반가움	아유01,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애고애고, 야04, 애02,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쿠, 예구, 예구구
	만족	으음
	흐뭇함	흠02, 흠흠02
	감회 새로움	참01

[+ 감정]	흥겨움	테루화, 어기야, 어기야디야, 어야디야, 어와, 어우하, 어절씨구, 얼싸01, 얼쑤,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절씨구, 에라01, 에루화, 예야디야, 에헤, 에헤야, 허허둥둥, 흙02, 흙흙02
	칭찬	아02, 어02, 지화자
	다행	거참, 그거참, 그것참
	안도(안심)	에뜨거라, 호02, 호호03, 후02, 후유01, 휴
	뉘우침	아02, 아빨싸, 애개, 애개개, 앵03, 어02, 어빨싸, 에게, 에게게, 앵01, 하빨싸, 허빨싸
	놀람(뜻밖)	깜짝이야, 머, 무어01, 뭐, 아02, 아아01, 아유01,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코, 앓01, 애고01, 애고고, 애고머니, 애고머니나, 애고애고, 야04, 애02, 어02, 어구머니, 어렵쇼, 어마01, 어마나, 어마뜨거라, 어머, 어머니, 어머머, 어어,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어찌면, 영02, 예구, 예구구, 예구머니, 예구머니나, 예그그, 예꾸, 예꾸나, 예끼01, 예쿠, 예쿠쿠, 예크01, 예크나, 예키, 웬걸, 으악, 이끼02, 이끼나, 이야01, 이크, 이키01, 이키나, 하이고, 하하02, 허허02, 호02, 호호03
	불만	음01
	못마땅함	시01, 씨04, 어따01, 어허, 예기02, 예끼02, 예이01, 예이그, 예이끼, 액, 앳01, 앵이, 예라01, 예이01, 으음, 쫓, 쫓쫓, 체02, 챗01, 치05, 허허02
	언짢음	아이고아이고, 애고애고, 움04, 윈02, 흙02, 흙흙02
	무서움	어마뜨거라, 예끼01, 예비, 예키
	슬픔	아02, 어02, 예구예구, 오호03, 오호애재, 오호통재, 움04, 하03, 허02, 허허02
	분노, 분함	앵03, 예키, 앵01, 예05, 예기01, 예끼01, 움04, 이야01, 체02, 챗01, 치05, 하03, 허02

[+ 감정]	원망	제02
	원통	아이01,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코, 애고01, 애고고, 애고머니, 애고머니나, 어구머니,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예구, 예구구, 예구머니, 예구머니나, 하이고
	절망	아이고, 애고01, 어이구, 어이쿠, 예구, 예구구
	좌절	아이고, 아휴, 애고01, 어이구, 어이쿠, 어휴, 예구, 예구구
	체념(어쩔 수 없음)	에참
	불쾌	에잇
	불안	어허
	짜증	앵03
	귀찮음	참01
	실망	에라01, 에이01
	탄식	맙소사, 아아01,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애개, 애개개, 애고01, 어이구, 어이쿠, 에게, 에게게, 예구, 예구구, 에이그, 오호03, 오호애재, 오호통재, 하03, 하하02, 허02, 허허02, 희라
	초조, 다급	아02, 앓01, 어02
	곤란함	해06, 해02
	답답함	제02
	당황	아02, 어02, 어렵쇼, 어어, 웬걸, 이크, 이키나
	걱정	음01, 하03, 하하02, 허02, 허허02, 후02, 후유01, 휴
	속상함	에02, 에이01, 에이끼, 에쿠나, 앵이
	비웃음	아따01, 어따01, 어일싸, 얼썬,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절씨구, 이키01, 이키나, 행02, 흥03, 흥02, 흥흥
	딱함	거참, 그거참, 그것참, 앵03, 에그, 에그그, 에그나, 에이그, 앵01, 쫓, 쫓쫓, 참01, 험03, 험험
	방정스러움	햐01
	하찮음	아따01
	한심함	에후

[+ 감정]	기막힘		거참, 그거참, 그것참, 씨04, 아유01,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코, 아휴, 애고01, 애고고, 애고머니, 애고머니나, 애해01, 어구머니, 어와,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어휴, 예구, 예구구, 예구머니, 예구머니나, 예헤, 하이고, 허허02, 참01, 험03, 험험
	아니꼬움		얼쭈,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절씨구, 체02, 챗01, 치05, 행02, 흠02, 흠흠02, 흥03, 흥02, 흥흥
	가소로움		애해01, 예헤
	고소함		잘코사니
[+ 의도]	격려		브라보, 아아01, 여차01, 영차01, 파이팅
	기세 더함		와02, 와와, 우아01, 우아우아, 이여차, 이영차
	수용	어린이	오냐오냐
		일반	유유03
	순종		예예01
	찬미		오희다, 오희02
	주의 환기		이06
	집중	주의	아02, 어02, 어화01
		정신	얍, 앓01
	알림		나헤, 무에리수에, 심봤다, 싸구려, 액션, 엇단식, 오버, 워대, 홀라
	힘줄		얍, 앓01
	다짐		영02, 오냐
	기억 노력		예02, 예쿠나
	어름(어린이)		가동가동, 까꿍, 등개등개, 등등, 아웅02, 아웅01, 어등등, 어화등등, 어허등등, 얼싸등등
	재움		자장자장
	위로		췌01, 췌췌
	위엄		어협01, 예이02, 으흠, 험02
	인기척		애험, 어협01, 예험, 으흠
	장난		아이스케키
	신앙		고수레, 나무아미타불, 복10
	따짐		어쩌면, 영02
	감기 예방		개치네췌, 에이췌

[+ 의도]	협력		어기여차, 어기영차, 어사와, 어여디여, 어여차, 어허라달구야, 어허야어허, 예여라차, 여차01, 영차01, 영치기, 영치기영차, 위여호, 치기영
	부름	동물	구구, 꾸꾸, 네미01, 아나02, 아나나비아, 오래오래02, 오요요, 워리01
		사람	혼 일반
	물거나 쫓음(동물)		두02, 두두, 뒤뒤, 뒤뒤뒤, 드레드레02, 쉬, 쉬이, 어디01, 어디여, 요개01, 우여01, 우여우여, 우우02, 위여01, 이개01, 이괴, 이라01, 이러01, 이러쩌쩌, 저라, 쩌02, 쩌쩌02, 후여, 후여후여, 휘이, 휘여
	시킴	동작, 일	대려라, 뵈시위, 부라, 안가시위, 앙02, 에라01, 예시위, 예오01, 찌로
		어린이	걸음마, 걸음마쪼쪼, 곤두곤두, 곤지곤지, 도리도리, 따로따로02, 따로따로따따로, 부라부라, 부바, 섬마섬마, 시장시장, 어부바, 응가, 죄암죄암, 찜찜, 귀엄귀엄, 질라래비훨훨, 짹짹쪼쪼, 쪼쪼
		동물	굽아, 들보03, 어디여, 와02, 와와, 왕03, 우아01, 우아우아, 우어01, 우어우어, 워02, 워워
	흥내		어흥
	놀라게 함		악02, 앙02, 으악
	그만둠, 끊음	생각	에02, 에기02, 에끼02, 에라01, 에쿠나, 에키, 옛01
		말	에키
		일반(행동)	에라01, 에이01, 엑
	거절		에02, 에쿠나
	금지	일반	게으쭈루, 췌, 에라01, 에우쭈루
		어린이	어비01, 에라01, 예비
꺼림		어마뜨거라	
꾸짓음		에02, 에이01, 에이끼, 예05, 예기01, 예끼01, 하하02, 허허02	

[+ 의도]	부정		에이01
	위협		우03
	놀람		때꼭, 때롱, 이리위, 저리위
	업신여김		애04, 애개, 에게, 에게게
	야유		우03, 우우02
	약올림		용용01
[- 의도]	놀람	소리	악02
		동작	억01, 이끼02, 이끼나
	외침		야호04
	갑자기 힘씀		이야01
	갑자기 생각남		참01
	찌르는 자세		이우아
	곡(哭)		아이고, 어이어이
[+ 느낌]	구토		액01
	감탄		오02, 오흠다, 오희02, 으아, 이야아, 참01, 하 하02, 험03, 험험, 호02, 호호03, 흥03
	상쾌		에02, 에쿠나
	경쾌함		알라차
	신기함		알라차
	깨달음		아02, 이뿔싸, 아아01, 아하, 어뿔싸, 어허, 엉 02, 오호01, 하뿔싸, 허뿔싸
	어렵지 않음?		아따01
	점잔		애헛, 에헛, 헛01
	힘듦	아이코, 아카사니, 아휴, 애고01, 애고고, 애고 머니, 애고머니나, 어구머니,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어 휴, 애구, 애구구, 애구머니, 애구머니나, 애구 에구, 체02, 챗01, 치05, 하이고, 후02, 후유01, 휴	
		괴로움	
	피로움		어와, 왕배야덕배야
	매움, 독함		카01, 커01
	끔찍함		어마01, 어마나, 어머, 어머니, 어머머, 예그, 에그나
	징그러움		예그, 예그나
	섬뜩함		예그, 예그나
	불확신		예라01
	내키지 않음		예라01

[+느낌]	아픔		아아01, 아유01,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코, 애고01, 애고고, 애고머니, 애고머니나, 어구머니, 어유01, 어이04,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예구, 예구구, 예구머니, 예구머니나, 예구예구, 예쿠, 예쿠쿠, 으음, 하이고
	싫증		에기02, 에끼02, 엑, 옛01, 엠01
	이상함		알라01, 알라차
	무거움		어뜨무러차, 영치기, 이커서니
태도	수궁		음01
	긍정		오냐, 으음
	인정		오02
	대답		오02
	의문		음01
	재촉	행동	저멀리직직
대답 재촉		앙03	
[+동작]	들어 올림		이아01
상황	음주		카01, 커01
	목소리 고름		헵01
방법	코		흙02, 흙흙02, 흥03, 형02, 형형
대답	긍정	높임	예예01, 예이02, 오02, 유유03
		안높임	오냐
후렴	장단		곤두곤두, 니나노, 달강달강02, 어리얼씨?, 어여디여, 어절씨구, 어허라달구야, 어허랑, 얼썬,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절씨구, 영치기영차, 지화자, 치기영, 허허둥둥, 허허이루후어
약기	구음(口音)		턱03

‘소리’ 감탄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 [+의도]³⁾, [-의도], [+느낌], 동작, 태도, 상황, 방법, 대답, 후렴, 약기’ 등에 따라 분류 가능했다. 둘째, ‘감정’의 경우 48가지의 감정으로 나타나서 최호철(2000:369~376)에서 제시한 29가지보다 더 다양했다.⁴⁾ 이때 ‘놀람(뜻밖), 흥겨움, 좋음, 기쁨, 원통, 탄식, 기막힘’ 등에 해당

3) 이는 학교 문법에서의 ‘의지’에 해당하는데, 뜻풀이로 보면 ‘의도’가 더 적절하다.

하는 감탄사가 가장 많았다. 셋째, ‘의도’의 경우 ‘몰거나 쫓음(동물), 협력, 어름(어린이), 시킴(어린이, 동물)’ 등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가장 많았다. 넷째, ‘느낌’의 경우 ‘감탄, 힘듦, 아픔’ 등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많았다.⁵⁾ 다섯째, ‘후렴’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 문법에서는 감탄사를 ‘감정, 의지, 말버릇’으로만 분류했지만, 『표준』의 감탄사 뜻풀이를 통해 보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다.

(6-1) ‘말’ 감탄사⁶⁾

분류 기준		감탄사
[+ 감정]	감탄	장재02
	놀람(뜻밖)	고런, 그런, 세상에, 요런02, 이런02, 저런02, 조런02, 천제01, 천지에, 천하에
	수줍음	아이참
	불만	제바리
	못마땅함	아이참, 으응, 응01, 응응
	슬픔	애재, 차호04, 차흠다
	분노	정말01, 참말
	채념	머, 무어01, 뭐
	짜증	으응
	탄식	차호04, 차흠다, 천제01, 천지에, 천하에
	초조함	아이참
	딱함	그런, 저런02
	기막힘	정말01, 참말
[+ 의도]	아쉬움	아소라
	주의 집중	자04, 어디01, 여03
	알림	레디고, 명균, 장균05, 평04

-
- 4) 이는 『표준』의 뜻풀이에 제시된 감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이때의 감정들 중 상위 부류로 묶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감정으로 처리했다.
- 5) 특히 ‘요개01’의 경우, ‘이개’보다 작고 귀여운 느낌이지만 낯잡는 느낌을 준다는 뜻풀이를 볼 때, 감정이라기보다는 느낌에 해당한다. 또한 모음의 음상에 따른 표현의 효과, 즉 낯잡는 느낌도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었다.
- 6) 말 감탄사의 제시는 분류 기준에 따른 편집 방식의 차이로 (6-1)과 (6-2)로 분리했다.

[+ 의도]	다짐		어디01, 응01, 응응, 정말01
	강조(딱한 형편)		어디01
	결심		좋아
	권함		자04
	승낙		아무려나
	동의		정말01, 참말
	찬성		그러게, 아멘02, 아무려면, 아무럼, 아민01, 암02, 옳소
	인사		빠이빠이, 안녕
	일깨워 줌		머, 무어01, 뭐
	되물음	일반	네03, 예06, 으응
		강조	어디01
	명령	일반	도시위
		어린이	쉬02, 쉬야01
		동물	죄죄01, 죄죄반반
	바람	긍정	아멘02, 아민01
		부정	아무려니
	어리광		머, 무어01, 뭐
	간청, 조름		네03, 예06
	확인		거보시오, 거봐, 거봐라, 그렇지, 내괘
	확인 요구		왜02
	청유		이리연초
	금지		가만, 쉬04, 아서01, 아서라, 컷
	놀림		알나리깁나리(아이)
	조롱, 비웃음		아나01, 아주02, 아쭈, 어주01, 어쭈, 웅01
	곤란		머시01, 저05
	버림		어디01
	불분명함		글쎄, 글쎄다, 글쎄올시다, 글쎄요, 머시01
	불필요		다이를까, 두어라
	심각히 여김		정말01, 참말
	반박		머, 무어01, 뭐
[- 의도]	순간 떠오름	일반	옳다02, 옳다구나
		삽입어	아니참
[+ 느낌]	생각과 일치		옳다02, 옳다구나
	깨달음		아차01, 아차차, 옳아
	감개무량		그02
동작	춤		옛네, 옛다, 옛소, 옛습니다

태도	긍정		으응, 옴아
	확신	긍정	고령지, 요령지, 이령지, 저령지, 조령지
		부정	아무리, 천만에
	마땅히 여겨짐		옴지
	마음 달랠		두어라
	부름에 응함		응01, 응응
	용기내기		까짓01, 까짓것
	재촉	대답	응01, 응응
		일반	자04
	질책		응01, 응응
포기		까짓01, 까짓것	
어색함		저05	
대답말	긍정	안높임	그래01, 그래그래, 응01, 응응
		높임	네03, 예06, 옻02
	부정	안높임	아냐, 아니02, 아니야
		높임	아니요
	당연함		그럼02
이유 물음		머, 무어01, 뭐	
높임	격식체	[+높임]	옻소, 옻습니다
		[-높임]	옻네, 옻다
	높임말		여보게나
	겸손		뭇01
	겸양		천만에
욕	못마땅함	일반	네기01, 네미02, 배라먹을, 오라질, 재미01, 쟈장
		혼자	넌장, 우라질
	분노		쌍01
	실망		옻장
	비난		오라질
	불평		오라질, 제기02, 제기랄, 제길
	언짢음		제기02, 제기랄, 제길
	저주		욕시랄
	불만		쟈장
	혼잣말	[+감정]	안타까움
의아함			자04
좋음			옴지

호칭어	[+높임]	여보세요, 여보쇼, 여보시게, 여보시오, 여보 십시오, 여릅시오, 여봐요, 엽쇼, 이보시오, 저보세요, 저보시오, 저보십시오, 할머니, 할 아버님
	[−높임]	고모부, 고모할머니, 고모할아버지, 빙모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올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어이05, 여 03, 여보01, 여보게, 여보게나, 여보아라, 여 봐, 여봐라, 외숙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부, 이보01, 이보게, 이봐, 저보게, 질부,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언니, 큰오빠, 큰올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큰형, 할머니, 할아버 지, 형수님
	[±높임] 통용	여보세요
	[+감정]	새아가, 시재-시재(時哉時哉), 여보게, 여보 게나, 아가01, 이보우
	[−감정]	아가01
	[−혈족]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아 버님, 할아버지
	부부	여보01

(6-2) ‘말’ 감탄사: 머뭇거림/더듬거림

분류 기준					감탄사
더듬거림/ 머뭇거림	생각/말	중간	막힘		저05
	생각	앞	[−의도]	갑자기 떠오름	아니참
				막힘	저기02
	말	앞	[+의도]	망설임	그02, 저05, 저기02
			[−의도]	막힘	저거시기, 저기02
			[+감정]	거북함	저기02, 저거시기
				감개무량	그02
		중간	[−의도]	막힘	머시01
			[+감정]	곤란함	머시01, 저05

‘말’ 감탄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 [+의도], [-의도], [+느낌], [-느낌], 동작, 태도, 대답말, 높임, 욕, 혼잣말, 호칭어, 더듬거림/머뭇거림’ 등에 따라 분류 가능했다. 이 가운데 ‘의도’와 관련된 감탄사의 하위 부류가 가장 다양했다. 둘째, ‘감정’의 경우 ‘놀람(뜻밖)’의 감탄사가 가장 많았고, ‘탄식, 못마땅함, 슬픔’이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의도]’의 경우 ‘찬성, 명령, 조롱(비웃음), 불분명함, 확인’ 등의 감탄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의도]’에는 ‘순간 떠오름’이 있었다. 넷째, ‘[+느낌]’은 ‘생각과 일치, 깨달음, 감개무량’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동작’에는 ‘춤(주다)’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있다. 여섯째, ‘태도’는 ‘긍정, 확신, 마땅히 여겨짐, 마음 달랜, 부름에 응함, 재촉, 질책, 포기, 어색함’으로 분류되었다. 일곱째, ‘대답말’에는 ‘긍정, 부정, 당연함, 이유 물음’이 해당된다. 여덟째, ‘높임’에는 ‘격식체, 높임말, 겸손, 겸양’ 등이 있었다. 아홉째, ‘욕’에는 ‘못마땅함, 분노, 실망, 비난, 불평, 언짢음, 저주, 불만’ 등이 해당되었다. 열째, ‘혼잣말’에는 ‘[+감정], [-감정]’이 있었다. 열한째, ‘호칭어’에는 ‘[+높임], [-높임], [±높임] 통용, [+감정], [-감정], [+혈족], [-혈족], 부부’ 등이 있었다. 열둘째, ‘더듬거림/머뭇거림’에는 ‘생각/말, 생각, 말’에 쓰이는 것이 있었으며, 말의 ‘앞, 중간’에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말 감탄사’도 ‘소리 감탄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에 따른 감탄사의 유형으로 모두 설명하기 곤란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감탄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 감탄사의 특징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답말, 높임, 욕, 혼잣말, 호칭어, 더듬거림/머뭇거림’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감탄사가 많았다. 즉, ‘[의도], [감정] : [놀람], [긍정], [확신]’ 등처럼 특정 의미 자질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 실현되는 감탄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 ‘호칭어’의 경우, 친족 호칭어와 일반 호칭어로 구분할 수 있었다.

- (7) ㄱ. 할머니, 할아버지
 ㄴ. 할머니, 할아버님

(7)은 ‘친족’, ‘부모의 어머니와 한 항렬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친족이 아닌 늙은 사람에 대한’ 호칭어이다. 특히 이들은 다의어로 제시되는데, 오히려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의미 파악에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⁷⁾

이때 친족 호칭어의 경우에는 (9)에서와 같이 높임의 여부에 따라, 동일 친족 관계일 경우 그 서열에 따라, ‘본디/추가 구성원’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 (8) ㄱ. 할머니, 할아버님
 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ㄷ.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8ㄱ)은 높임말이며, (8ㄴ)은 아버지의 형제 중 서열에 따른 호칭어이며, (9ㄷ)은 추가 구성원, 즉 서모(庶母)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9ㄷ)의 대답어에 해당하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에는 이러한 의미가 없다.

셋째, 호칭어의 뜻풀이에서 높임과 안높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 (9) ㄱ. 할머니, 할아버님
 ㄴ. 장모님, 장인어른, 형수님

7) 이처럼 하나의 감탄사를 다의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의미 사이의 관련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 ㄱ. 그림02: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ㄴ. 가만: 남의 말이나 행동을 막을 때 쓰는 말.
 ㄷ. 네03 ㉠ 뒷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 뒷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 뒷사람의 말을 재우쳐 물을 때 쓰는 말.
 ㉣ 뒷사람에게 조르거나 사정할 때 쓰는 말.

ㄱ, ㄴ에서는 ‘당연함’과 ‘대답’, ‘말’과 ‘행동’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ㄷ의 ㉠, ㉡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지만, 이들과 ㄷ의 ㉢, ㉣은 의미적 관련성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¹⁾

(9ㄱ)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의 높임말’로 명시되어 있지만, (9ㄴ)의 경우는 ‘장모01, 장인02, 형수01을 부르는 말’이라고만 제시되어 높임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예문을 통해서 높임의 등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임과 안높임, 그리고 높임/안높임 구분 없이 통용되는 것이 있었다.

(10) ㄱ. [+높임]: 여/저보십시오, 여보세요, 이/저보시오 ...

ㄴ. [-높임]: 어이05, 여봐라, 고모부, 빙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

ㄷ. [±높임]: 여보세요

(10ㄱ)은 종결 어미에 높임 의미가 드러나며, (10ㄴ)은 어휘 또는 (9ㄴ)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10ㄷ)은 높임의 여부에 따라 다의어로 처리된 것으로서,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말일 때에는 높임의 여부와 관계없이 쓴다.

넷째, 말 감탄사의 ‘[-의도]’와 ‘더듬거림/머뭇거림’은 학교 문법의 ‘말버릇’, 『표준』의 ‘군소리’⁸⁾에 해당한다. 그래서 『표준』의 ‘군소리’와 동일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 즉, 말 감탄사에서는 ‘생각, 말’, 군소리 감탄사에서는 ‘글, 말’에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뜻풀이와 예문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쓰이는 위치가 ‘앞, 중간’에 국한되는데, 말 감탄사는 주로 ‘앞’에, 군소리 감탄사는 주로 ‘중간’에 실현된다.

(11) ‘군소리’ 감탄사

분류 기준				감탄사
글/말	중간	막힘, 덧붙임		가서01, 가설랑, 가설랑은
말	앞	[+ 의도]	망설임	에02
	중간	[+ 의도]	망설임	에02
			더듬음	에02
			주저함	에에02
		[- 의도]	막힘	가서01, 가설랑, 가설랑은, 거시기, 에에02
		[+ 감정]	거북함	거시기

8) 『표준』의 ‘군소리’ 뜻풀이 중 ‘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쓸데없는 말’에 해당한다.

‘군소리’ 감탄사는 학교 문법의 분류에서는 ‘말버릇 또는 더듬거림⁹⁾ 감탄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말을 하고자 할 때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특정한 감탄사를 상투적으로 말의 앞이나 뒤, 중간에 넣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의 ‘군소리’로 뜻풀이되어 있는 감탄사는 결과적으로 4개뿐이었다.¹⁰⁾

(12) ㄱ. 가서01: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또는 말을 하다가 막힐 때 중간에 덧붙여 내는 군소리.

ㄴ. 거시기: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ㄷ. 예02: 「5」 무엇을 생각하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내는 소리. 「6」 말을 시작하거나 말하기를 망설일 때, 또는 말하는 도중에 뒷말이 곧 나오지 아니할 때 내는 군소리.

ㄹ. 예에01: 다음 말이 곧 나오지 아니할 때, 또는 주저할 때 내는 군소리.

이를 보면 학교 문법에서처럼 감탄사의 분류가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뜻풀이만으로는 말버릇과 더듬거림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다. 둘째, 그 유형 분류가 계층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먼저 글과 말, 말에 쓰이는 것으로 나누어지므로 글에만 쓰이는 것은 없었다. 셋째, 그 위치에서도 말의 앞이나 중간에 쓰이는 경우만 분명히 확인되어 말의 뒤에 쓰이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뒤에 쓰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넷째, [의도]의 유무와 [감정]의 유무가 체계적으로 대립을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이들은 ‘말 막힘, 덧붙임, 망설임, 더듬음, 거북함’ 등의 상황에서 쓰이는데,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곤란했다. 예를 들어, 망설이거만 하는 상황과 망설이면서 더듬는 상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9) ‘더듬거림’은 『표준』의 뜻풀이를 볼 때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더 적절한 용어로 생각된다. 이러한 용어 설정에 대해서도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10) ‘가서01, 가설랑, 가설랑은’은 동의어, ‘에쿠나’는 ‘예02’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구령 또는 그 동작’ 감탄사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3) ‘구령 또는 그 동작’ 감탄사

분류 기준		감탄사
구령	제식 훈련	기준03, 번호02, 주목03
	일반	기립, 복스02, 착석
구령 또는 그 동작	제식 훈련	걸어총, 뒤로돌아가, 뛰어가, 모여, 무릎좌, 무릎앉아, 바로02, 바른걸음으로가, 반걸음으로가, 받들어총, 세워총, 앞에총, 앞으로가, 열중쉬어, 우로봐, 우로어깨총, 우향앞으로가, 일어서, 좌로어깨총, 좌향앞으로가, 차려, 차렷, 편히쉬어, 편히앉아, 헤쳐
	일반	거총, 검사총, 꽃아칼, 뒤로돌아, 서04, 서서좌, 쉬어, 쏘아, 쏘02, 앉아, 앉아좌, 앞으로나란히, 어깨총, 엎드려뻗쳐, 엎드려좌, 우로나란히, 우향우, 제자리에 서, 좌향좌, 지어총

‘구령 또는 그 동작’ 감탄사는 주로 명령을 나타내는데, ‘구령’, ‘구령 또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각각 ‘제식 훈련’에서 쓰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제식 훈련의 상황과 일반적 상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해당 감탄사를 보더라도 그 의미적 차이나 쓰임상의 차이 등을 분명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¹¹⁾ 이때 ‘구령’은 ‘[감탄사]’로 제시되고, ‘구령 또는 그 동작’은 ‘[감탄사명사]’로 제시된다는 품사 제시 방식에서의 차이뿐이었다.

그런데 품사 통용의 감탄사들은 그 품사들이 제각기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지만, ‘구령 또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함께 제시되어 있다.

11)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들 감탄사가 그 구성상 단어인 것도 있고 구인 것도 있다는 점과,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발화되는 일종의 소형문(minor sentence)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이들을 한 단어로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기준)가 필요한데, 『표준』이나 학교 문법에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14) ㄱ. 거총(据銃) 「1」 「감탄사·명사」 「군사」 사격할 때 목표를 겨누기 위하여 총의 개머리판을 어깨 앞쪽에 대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ㄴ. 꾸꾸 [1] 「1」 「부사」 답이나 비둘기 따위가 우는 소리. [Ⅱ] 「1」 「감탄사」 답이나 비둘기 따위를 부를 때 내는 소리.

ㄷ. 만세04(萬歲) 「1」 「감탄사·명사」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ㄹ. 개치네-췌 「1」 「감탄사」 재채기를 한 뒤에 내는 소리.

(14)는 모두 품사 통용을 의미하는 표시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4 ㄱ)은 서로 다른 품사를 하나로 묶어서 제시했고, (14 ㄴ)은 각 품사를 분리하여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일러두기’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품사는 다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여 다른 뜻풀이가 불가능함을 보이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4 ㄹ)처럼 감탄사를 마치 명사와 동일한 것으로 뜻풀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에 타당성이 결여됨을 쉽게 알 수 있는데, (14 ㄴ)의 뜻풀이 때문이다. 곧 ‘부사’로서의 의미와 ‘감탄사’로서의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달라야 한다는 전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호’, ‘후렴’ (‘농부가’의 후렴의 일부), ‘소리 또는 모양’ 감탄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모아서 함께 제시한다.

(15) ㄱ. ‘구호’ 감탄사: 드오, 지오01

ㄴ. ‘후렴’ 감탄사: 상사뒤야, 상사뒤요, 상사디야

ㄷ. ‘소리 또는 모양’ 감탄사: 험02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표준』의 뜻풀이를 바탕으로 현대 표준어 감탄사의 유형 분

류를 시도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뜻풀이의 방식에 따라 ‘소리, 말, 군소리, 구령 또는 동작, 구호, 후렴, 소리 또는 모양’ 감탄사로 유형을 설정했다. 둘째, 소리 감탄사는 ‘감정, 의도, 느낌, 동작, 태도, 상황, 방법, 대답, 후렴, 악기’ 등에 따라 분류 가능했다. 이때 감정에는 ‘놀람(뜻밖), 흥겨움, 좋음, 기쁨, 원통, 탄식, 기막힘’, 의도에는 ‘물거나 쫓음(동물), 협력, 어름(어린이), 시킴(어린이, 동물)’, 느낌의 경우 ‘감탄, 힘듦, 아픔’ 등이 많았다. 셋째, 말 감탄사는 ‘감정, 의도, 느낌, 동작, 태도, 대답말, 높임, 욕, 혼잣말, 호칭어, 더듬거림/머뭇거림’ 등에 따라 분류 가능했다. 이 중 ‘의도’ 관련 감탄사의 하위 부류가 가장 다양했다. 감정에는 ‘놀람(뜻밖), 탄식, 못마땅함, 슬픔’, 의도에는 ‘찬성, 명령, 조롱(비웃음), 불분명함, 확인’ / ‘순간 떠오름, 예상과 일치’, 느낌에는 ‘깨달음, 감개무량 / ‘납득’, 동작에는 ‘줌(주다)’, 태도에는 ‘궁정, 확신, 마땅히 여겨짐, 마음 달랠, 부름에 응함, 대답 재촉, 질책, 포기, 어색함’, 대답말에는 ‘궁정, 부정, 당연함, 이유 물음’, 높임에는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말, 겸손, 겸양’, 욕에는 ‘못마땅함, 분노, 실망, 비난, 불평, 언짢음, 저주, 불만’, 혼잣말에는 ‘감정’, 호칭어에는 ‘높임, 감정, 혈족, 부부’, 더듬거림/머뭇거림에는 ‘생각/말, 생각, 말’ / ‘앞, 중간’ 등이 있었다. 넷째, 구령 또는 동작의 경우 제식 훈련과 일반적 상황으로 구분되며, 품사 제시 방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구호, 후렴, 소리 또는 모양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글에서 제시한 감탄사의 유형 분류 기준을 좀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②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기존의 감탄사 유형 분류를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③ 『표준』에 제시된 감탄사의 단어 형성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감탄사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의 감탄사 교육 내용과 활동 등으로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⑤ 선정된 교육 내용과 활동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문법』, (주) 두산, 90~111쪽.
-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 두산, 123~147쪽.
- 김문기(2010), 「감탄사의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 『동남어문논집』 30, 동남어문학회, 5~24쪽.
- 김문기(2011), 「품사 통용 감탄사의 처리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129~152쪽.
- 김문기(2012), 「감탄사와 부사의 문법 범주적 관련성 연구」, 『한글』 296, 한글학회, 123~150쪽.
- 김미선(2010), 「감탄사의 범주 설정에 대한 재고찰」, 『어문논집』 45, 중앙어문학회, 117~146쪽.
- 김태엽(1996), 「국어 독립어의 문법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77~100쪽.
- 나찬연(2016),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4판), 월인, 85~95, 229~240, 331~332쪽.
- 도원영(2017), 「20세기 전기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36,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49~74쪽.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217~222쪽.
- 서태룡(2016),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와 감탄사 통용」, 『국어학』 80, 국어학회, 3~34쪽.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41~259쪽.
- 안의정(2007), 「구어 말뭉치를 이용한 감탄사의 목록 보완 방안」, 『한국사전학』 10, 한국사전학회, 185~196쪽.
- 오승신(1994), 「감탄사의 본질」,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71~88쪽.
- 이현희(2015), 「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감탄사의 범주 전형성 연구」, 『우리말연구』 40, 우리말학회, 33~63쪽.
- 장소원·김혜영(2016), 「구의 개념 정립과 그 분류」, 『국어학』 80, 국어학회, 173-194쪽.
- 전영옥(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5~274쪽.
- 전영옥(2012),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분류 연구」, 『한말연구』 31, 한말연구학회, 229~260쪽.

- 최웅환(2015), 「국어 감탄사와 품사분류 준거」, 『국어교육연구』 57, 국어교육학회, 223~250쪽.
- 최형용(2012), 「분류 기준에서 본 주시경 품사 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국어학』 63, 국어학회, 313~340쪽.
- 최호철(2000), 「현대 국어 감탄사의 분절 구조 연구」, 『한국어내용론』 7, 한국어내용학회, 361~405쪽.
- 허재영(2001), 「감탄사 발달사」,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 의미학회, 65~96쪽.

김문기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기 37(하단동)
051-200-7028
kimmng5058@hanmail.net

접수 일자: 2017년 6월 9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17년 6월 15일~2017년 7월 1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7월 17일

<Abstract>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exclamations i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by its dictionary definitions

Kim Mun-Gi(Dong-A Univ.)

In this paper, I try to classify 586 modern standard language words which listed i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In the school grammar, the type of exclamation has been classified as ‘emotion, will, and a way of talking’ by its dictionary definitions. By applying this semantic-based classification method, I try to classify the type of exclamation based on the meaning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o I divided the exclamation into several types as follows. ; sound exclamation, speech exclamation, an unnecessary remark exclamation, command/action exclamation, chant exclamation, refrain and sound/form exclamation. And I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se typ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will be a learning material that can be used for educational contents and activities in school grammar. Because Korean dictionary and school grammar have a common premise such as norms and standardization, they have to have organic relevance.

* Key words : exclamation, type, classification, school grammar,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meaning, sound, speech, an unnecessary remark, command/action, chant, refrain, sound/form